

익산농업인대학, 전문농업인 배출의 산실

36개 과정 운영, 12년 간 1114명 교육생 배출 졸업 후 '선도농업인·농업발전 거버넌스' 역할

익산농업인대학이 미래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농업기술센터가 운영 중인 농업인대학은 지난 2008년 개설돼 올해로 12년 째 맞춤형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11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3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8개월 간 운영되는 익산농업인대학은 매주 1회 4시간씩 총 25강좌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곤충산업과 온라인마케팅, 농산물가공반 등 3개 과에 100명의 신입생이 선발됐으며 이들은 학과별 특성에 맞는 이론교육과 함께 체험, 견학 등 실습을 병행하는 종합교육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농업인대학은 최근 농업의 트렌드를 반영해 생산은 물론 유통, 마케팅, 가공, 체험까지 아우르는 6차산업 교육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 노하우부

터 소비자 욕구에 맞는 가공상품 개발, 농촌체험, 농가맛집 등 농가 소득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만큼 교육생들의 학사과정도 엄격하고 간간하게 관리되고 있다.

매년 전국 최고의 강사 50~60여 명이 출강하고 있으며 농촌진흥기 관과 각종 연구소, 신지식농업인 등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교육생들과 함께하고 있다.

교육생은 75% 이상의 출석률과 평가시험을 거쳐야 수료할 수 있으며 까다로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매년 교육생들의 수료율은 90%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우수한 시설과 강사풀, 질 높은 교육 서비스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는 설문에서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90%로 높게 나오고 있다.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은 농업CEO 또는 농업인들에게 선도 농업기술



익산농업인대학이 미래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과 효과적인 마케팅 요령 등을 전파하는 현장 컨설팅으로 활약하고 있다.

또한 타 지역 농업인 교육에 출강하거나 행정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작목별 농업인연구회를 조직해 정보교류와 자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는 수료생

들의 정보습득 등을 위해 품목별 단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농업인대학은 졸업생들이 지역 농업을 이끄는 리더로 활약하는 등 전문 농업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역점품목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최고의 농업인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 신규 사업 추진 정책사전 검토제 시행

행정 시행착오 최소화 전망

군산시가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정책 사전 검토제'를 시행하며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사전 검토제는 정책 수립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주요 행정절차 및 대내외적 영향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도와 한 것으로 향후 군산시 공직자들은 국장급 이상 결재를 받는 중요 계획 수립

시, 사전 검토항목 점검 결과를 첨부해 결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다수의 시민이 수혜를 받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업, 대규모·장기간 예산이 투입되고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등이 적용 대상이다.

사전검토 항목은 관련법규 검토, 사전절차 이행, 시민참여 및 전문가 자문, 의회 및 타 기관 협업, 이해관계 및 민원사항 파악 등 총 12개 항목이다.

군산시는 '정책사전 검토제'의 본격

적인 시행에 앞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통해 운영과정 상 문제점, 직원 의견, 효과성, 항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사항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봉곤 기획예산과장은 "정책사전 검토제의 운영으로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앞장서겠다"며 "특히 주요 정책 추진 시 시민의견 반영을 필수 항목으로 정책에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2020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국비 확보

익산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0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북부권 건강증진센터 증축사업이 선정돼 국비 5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개선, 기능보강 등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신청 받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함열보건진료소에 건강증진센터를 증축하여 1층은 건강증진실, 2층은 영양교실, 통합상담실 등을 설치해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욕구를 해소할 예정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저소득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군산시, 수혜대상 따라 1인당 23매씩 10월 중 보급 예정

군산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며 강임준 군산시장의 시장방문인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를 실천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을, 겨울철 미세먼지 증가에 대비해 저소득층의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산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2만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총 3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수혜대상 따라 KF80, KF94 미세먼지 전용 마

스크가 보급되는 이번 사업은 1인당 23매씩 10월 중 보급될 예정이다.

김양천 복지관광국장은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미세먼지 마스크 비용은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환경성 질화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청장년층보다 폐기능이 약해 마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제233차 월례연구발표회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원불교사상연구원은 오는 27일 원불교학 연구학자 3명을 초청해 제233차 월례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월례연구발표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원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보편적 신앙 수행을 위한 고찰'에 관해 묻는 취지로 마련됐다.

발표회는 먼저 노권용(대훈) 원광대 명예교수의 '법신불 일원상(法身佛 一圓相)의 종교적 함의의 새 고찰'에 이어 원불교 교화훈련부 권용갑(도갑) 교무가 '누가 나를 괴롭히는가?-은 삶 마음일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펼칠 예정이다.

첫 발표자로 나서는 노권용 명예교수는 원광대 불교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원불교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원불교사상연구원 부원장, 한국원불교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불타관의 연구'를 집필하고, '석전 박한영의 불

교사상과 개혁운동', '교리도의 교상판석적 고찰'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권용갑 교무는 비영리단체인 '행복한 가족' 이사장과 원광디지털대 마음공부학 교수로 재임 중이며, 국회 마음공부학, 행복한 가족캠프 등을 운영하면서 마음공부의 사회화에 앞장서고 있다. 저서로 '참 믿음의 길, 마음어안녕!', '자비무량 법신불',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 등 다수가 있다.

마지막 발표는 '원불교 상시 일기법(日記法) 유념(有念) 개념의 이중성'을 주제로 원광대 원불교학과 염정준(관진) 교수가 진행한다. 원불교학, 서양근세철학, 동서양비교철학 등이 주요 연구 분야인 염정준 교수는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원광대 한중문화연구원장, 인문학플러스(HK+) 사업단장 등을 맡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원도심 문화재 활용 생생문화재 사업 추진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 군산시가 원도심의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며 원도심에 활기가 날아갈 전망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원도심 내 문화재를 활용한 '2019년 하반기 생생(生生)문화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문화, 관광, 교육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시행하는 것으로 군산시는 6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에 추진하는 생생문화재사업은 군산 시흥동 일분식가옥, 구 군산세관 본관 등 5개 문화재를 적극 활용해 문화재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프

로그램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군산의 근대역사 탐험", "문화재에서 만나는 작은 음악회(군산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하다)", "문화재 감성학교", "문화재로 진로를 잡아라"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지역 문화유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역사문화콘텐츠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두양수 문화예술과장은 "우리지역 학생과 주민은 물론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근대 역사를 품고 있는 우리지역의 문화재를 통해 역사를 학습하고 두루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협에 대한 지속적 경계